

그 사이에 있는 노래, 4주차

시편 127편: 불안한 시대를 위한 노래

보스턴 브래디

2024년 10월 13일

승천의 노래. 시편 127편. 리뷰

시작 전에 시작해 봅시다. 이 시편의 시작 전에는 소위 표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한 승천의 노래." 이것은 원본 원고에 쓰여 있습니다.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 다윗/솔로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집을 짓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어서 집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역대기 하 2-5장에서 건축에 대해 읽을 수 있고, 6장에서 헌당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이 노래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과 우리 안에 무엇을 쌓으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을 위해 쓰였든 솔로몬에 의해 쓰였든, 하나님의 집에 대해 쓰여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짓는 것이 큰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른 어떤 건축 프로젝트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로 시작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설자들의 수고가 낭비되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보초로 지키는 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2 너희가 그렇게 수고해도 소용없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일하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3 자녀는 여호와와 선물이요

그것은 그에게서 받은 보상이다.

4. 한 청년이 낳은 아이들

마치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

5 그 화살통에 그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는 성문에서 그의 고발자들을 마주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27편

이 시편이 초상화라면, 색상은 생생하고 이미지는 명확하고 감정적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는 만질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하나는 만질 수 없지만 매우 매우 강력합니다. 세 가지 만질 수 있는 것은 집, 도시, 아이들입니다. 하나의 만질 수 없는 것은 불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불안한 노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작가는 우리에게 자유와 풍요로움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서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집'이라는 단어는 집과 집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건물은 가구부터 가족까지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집은 아름답고 화려할 수 있지만 집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겸손하고 작을 수 있지만 여전히 따뜻함과 생명력, 활력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임재를 위한 집을 짓는 일을 맡았습니다.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웅장했습니다(사실). 그 세부 사항은 무작위가 아니었고,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느님이 살기에 충분히 웅장한 것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집은 안전과 집을 위한 것입니다. 집은 보호를 위한 것이고 또한 공급과 양육을 위한 것입니다. 집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집은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생존 쇼를 좋아하고 우선순위는 쉼터, 물, 불, 음식입니다. 쉼터는 생존을 위한 첫 번째 우선순위이므로 머리 위에 지붕을 찾거나 유지하는 것이 많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을 짓는 것은 비유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거의 항상 어느 시점에서 두려움이나 눈물 또는 긴장을 유발합니다. 집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 가장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불안한 노동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는 축제로 가는 길에 부른 이 시편은 우리가 건물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시간과 돈과 근육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이 건축하십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지만... 그들이 자라서 떠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크고 작은 순간, 아마도 많은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돈이 부족하고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를 때, "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 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운 기대에 부응하거나 이웃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하다 지쳤을 때... "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딜레마는 집이 안전을 제공해야 하지만 건물이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낼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노래하면서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주님이 이 집을 짓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일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교회에서 텅 빈 복도를 걷다가... 주님이 이 집을 짓지 않으시면...

다음으로, 이 시편은 도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도시는 집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규모가 더 큼니다. 도시는 우리 집과 우리 국민의 정체성과 안전을 상징합니다. 도시는 상업과 정부를 상징합니다. 도시 정부는 실제로 국가 정부보다 내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가 내 집에 침입하면 워싱턴 DC에 전화하지 않고 경찰서에 전화합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지 않고 학교 교장에게 전화합니다. 도시 내 정부는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편은 일출을 기다리고 걱정하며 바라는 도시 경비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이 오기를. 그는 어느 시점에 도시 성벽 위에 서서 희망을 기다립니다. 그의 불안을 거의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불안한 수고. 하지만 노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지켜보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이 지켜보든 상관없습니다.

내 도시의 정부는 무엇인가? 내 평화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벽을 어떻게 쌓았는가?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우리 삶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루함을 피하고 싶어하지만...우리 모두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안전과 보안에 기울어져서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 나는 돈을 저축하고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밤에는 차 문을 잠근다. 나는 내 발걸음을 조심하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약간의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불안한 노동이 될 것이다.

시편은 "일하지 말라", "지켜보지 말라", "짓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예수님 없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그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만든 남자나 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2 너희가 그렇게 수고해도 소용없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일하다;

하나님께서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이 구절은 일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성경은 좋은 하루의 일을 거듭거듭 칭찬합니다). 일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노동은 돈이나 음식을 비축할 수 있지만, 평화와 기쁨의 창고에서 훔쳐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을 신뢰하는 능력에 균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불안에 대한 해독제가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휴식은 이유가 있어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에 반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생산에 노예가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문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길고 아름다운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22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 목숨은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은 옷보다 중요하다. **24**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나 헛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가! **25**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써 자기의 수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26** 그런 작은 일도 할 수 없다면, 왜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27**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어떻게 자라는지. 수고도 하지 않고 실도 짓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영광 속에서도 솔로몬은 이 꽃 하나만큼 화려하지 않았다. **28** 오늘 들에 살아 있다가 내일은 가마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30** 이는 세상 모든 민족이 이것들을 구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31** 오히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32 "작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의 왕국 전체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일은 좋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왕국의 이해 관계자로 볼 때, 나는 내 일을 다르게 봅니다. (스토리)

마지막으로, 노래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으로 전환되고, 이것은 흥미롭고 적절한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나 더 많은 걱정스러운 관찰이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속으로 시작하는데, 정말 좋은 약속입니다.

3 자녀는 여호와와 선물이요

그것은 그에게서 받은 보상이다.

4. 한 청년이 낳은 아이들

마치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

5 그 화살통에 그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는 성문에서 자신을 고발한 자들과 마주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들은 모두 선물입니다. 모두 약속입니다. 아이들은 선물입니다. 아이들은 보상입니다. 아이들은 화살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그들은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호도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짓는 데 협력하는 좋은 일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짓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일을 위해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짓도록 초대합니다. 그들은 전쟁의 일부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아이들은 당신의 수면과 시간을 훔치고, 때로는 당신의 평화를 훔칩니다. 그들은 부모나 조부모에게 당신의 소유이지만, 결국 성경은 진실되고 확고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우리의 걱정스러운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아이를 키우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곳과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향한 여정에 동참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하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수고하되, 실을 짓지 말라.

다가올 유산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세 가지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믿으세요.

신을 신뢰하라. 거의 항상 그렇게 돌아간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신에게 맡길 수 있을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을 신에게 맡길 수 있을까? 이 노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쉬는 유일한 길이다. 온 땅의 기쁨으로 이끄는 긴 순종이다.

교강과 응답.